

# 2루타 홈런 둔갑... 비디오 오판한 심판진 무더기 징계

KBO 'KIA-삼성전' 공식 사과 심판진·판독센터장 출장 정지 해당 심판팀에 제재금 100만원

6·7월엔 스리피트 라인에 눈물 줄이는 '오심'에 팬들도 원성

KBO가 KIA와 삼성전에서 나온 비디오 판독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담당 심판진에 징계를 내렸다.

KBO는 "1일 포항구장에서 개최된 삼성과 KIA와의 경기 3회말에 발생한 비디오 판독 오독 상황과 관련해 KIA 구단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홈런 여부에 대한 판독은 비디오 판독센터에 송출된 방송 중계 화면을 통해 진행됐으며, 타구가 펜스 상단에 맞고 튀어 오른 이전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독이 이루어져 오독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오독을 인정한 KBO는 비디오 판독센터에서 해당 경기를 담당했던 메인 심판에 대해 10경기, 보조심판과 판독센터장에게는 5경기 출장 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부정확한 판정과 미숙한 경기 운영을 한 해당 경기 심판 팀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장면은 KIA가 0-4로 뒤지고 있던 3회말 2사 2루에서 나왔다. 당시 류지혁의 타구가 펜스 앞 쿠션을 맞은 뒤 튀어 올랐고, 공은 철조망 뒤 외야에 있던 팬이 내민 글러브에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왔다.

심판진은 홈런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KIA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도 공이 1차로 펜스 앞에 맞은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KBO는 "1-3일 포항에서 열리는 KIA-삼성의 경기를 앞두고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마운드를 포함한 그라운드 전체의 흙을 교체했으며, 내·외야 펜스 보호 패드 시설 보완을 완료했다"고 홍보를 했다.

KBO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제 2구장에서의 경기력에 대해 강조했지만 이날 공교롭게도 '오심 논란'이 벌어지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오심' 논란은 올 시즌에도 여전하다.

일관성 없는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경기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오라카라 판정과 '눈 뜨고 오심'이 이어지면서 KBO를 향한 야구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올 시즌 골작골작한 오심을 마무른 KIA팬들의



KBO가 1일 KIA와 삼성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비디오 판독 오독을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앞서 KBO는 스리피트 라인을 놓고 오라카라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삼성전 스리피트 라인 판정을 놓고 김중국 감독이 항의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분반의 목소리도 크다.  
KBO는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스리피트 라인' 수비방해 규정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KIA전 판정 논란이 불러온 변화였다.  
KIA는 올 시즌 스리피트 라인에 울고 웃었다. 김중국 감독은 스리피트 라인으로 두 차례 퇴장당하기도 했다.  
6월 16일 NC전에서 KIA 포수 신병수가 희생번트를 맨 뒤 1루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투수 류지혁의 송구에 맞았다. 원심은 NC의 송구실책이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스리피트 위반으로 인한 신병수의 아웃이 선언됐다. 김중국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 대해 어쩔바가 없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진행됐던 7월 1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김중국 감독이 비디오 판독 결과를 놓고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이번에도 스리피트가 문제였다.

삼성 피렐라의 땅볼 타구를 잡은 양현종이 1루에 약수구했고, 셰이프가 선언했다.  
이번에도 비디오 판독이 진행됐고 피렐라가 명백하게 파울라인 안쪽으로 뛰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결과는 스리피트 라인 위반으로 인한 아웃이 아니라 투수의 송구 실책으로 인한 셰이프였다.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판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고 KBO는 급기야 스리피트 라인 규정에 대한 세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KIA전에서 황당한 판정이 나오자 KBO는 구단과 팬을 언급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KIA는 1일 오심으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0-6까지 물렸지만, 대역전소를 펼치면서 11-8 승리는 만들었다. 오심을 담고 만든 통쾌한 승리였지만 KIA팬들은 '불신'의 시선으로 그라운드를 지켜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챔피언십 시각장애인도 야구 즐긴다

내일부터 잠실·사직구장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  
광주-기아 챔피언십필드와 잠실·사직구장에서 시각장애인도 생생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KBO가 4일부터 광주, 잠실, 사직 구장에서 시각장애인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중계 음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회의원과 허구연 총재가 KBO리그 경기를 관람한 뒤 장애인의 야구 관람 편의 증대 방안을 논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경기장에서 소출력 FM 라디오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TV 중계 방송 음성이 제공돼 상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관람객은 경기장 내 'KBO 중계 음성 지원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단말기를 대여할 수 있다. 안내데스크는 광주 1층 중앙 출입구 및 5층 중앙 복도, 잠실 1루 내야 2-3계이트, 사직 1루 외야 1-7계이트에 마련됐다. 전용 유선번호(1577-7211)를 통해서도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단말기 좌석 전달 및 수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복귀 '절반의 성공'

14개월만에 빅리그... 볼티모어전, 5이닝 4실점 고전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14개월 만에 빅리그 마운드로 돌아와 5이닝을 채웠다. 하지만, 아직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다.  
류현진은 2일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9안타를 맞고 4실점했다.  
피안타도, 장타 허용도 많았다. 이날 류현진이 내준 안타 9개 중 4개가 장타(홈런 1개, 2루타 3개)였다. 시속 100마일(약 161km)을 넘는 타구도 5개나 허용했다.  
류현진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1마일(약 146.5km), 평균 구속은 시속 89마일(약 143km)로 아직은 기대했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주 무기 체인지업(22개)의 제구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아 위키 때는 커브(20개)를 결정구로 사용했다.  
류현진은 특히 경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6월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426일 만에 등판한 류현진은 복귀전 초구를 '직구'로 택했다.  
1회초 첫 타자 애들리 러치먼에게 던진 초구 직구의 시속은 142km였다.  
러치먼은 류현진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 우중월 2루타를 쳤다. 다음 타자 라이언 마운트케슬은 류

현진의 시속 136km 컷 패스트볼을 통타해 좌중간 2루타를 만들었다.  
류현진은 3번 안토니 산탄데르에게는 체인지업을 던지다가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코너에 몰린 류현진은 커브를 활용해 버렸다.  
구속도 3회 산탄데르를 상대로 이날 최고인 시속 146.5km를 던지는 등 조금씩 상승했다.  
1~4회 연속해서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5회에도 출루를 허용했지만, 류현진은 3회와 5회 두 번의 병살타를 유도하는 등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은 5회 1사 1·2루에 물렸지만 오스틴 헤이스를 유격수 앞 병살타로 처리하며, 복귀전 첫 목표였던 '5이닝 투구'에 성공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아쉬움을 남겼다.  
5회까지 잘 버틴 류현진은 6회 선두타자 거너 헨더슨에게 던진 5구째 시속 123km짜리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려 우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9안타를 맞은 건 2021년 8월 9일 보스턴 레드삭스전(4.1이닝 10피안타 3실점) 이후 16경기 만이다.  
눈에 보이는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직 낙담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6월 19일 왼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14개월 동안 재할한 류현진은 일단 빅리그



류현진  
마운드에 '완전한 선발'로 복귀했다. 마이너리그 4차례 재활 등판에서 합격점을 받아 빅리그 복귀에 성공한 류현진에게 다음에도 등판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복귀전에서 류현진의 직구 구속은 최고 시속 2.5km, 평균 시속 2km 올랐다. 조금 더 구속을 회복한다면, 특유의 제구와 맞물려 한결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최지만·김하성 '코리안 듀오' 결성

샌디에이고서 한술밥... '가을 야구' 기대감

최지만(32)이 김하성(27)과 함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댈다.  
MLB닷컴은 2일 "트레이드 마감일에 샌디에이고가 왼손 투수 리치 힐과 1루수 최지만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부터 베테랑 최지만과 힐을 받고, 왼손 투수 잭 울프, 외야수에 스투아트 수어로, 1루수 알폰소 리바스 등 유망주 3명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배지환과 피츠버그에서 뛰던 최지만은 올해 남은 시즌을 김하성과 함께 보낸다.  
2016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최지만은 뉴욕 양키스,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피츠버그를 거쳐 샌디에이고까지 왔다. 샌디에이고는 최지만의 6번째 빅리그 팀이다.  
빅리그에 데뷔하기 전에는 시애틀 매리너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미국 생활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샌디에이고는 최지만의 8번째 팀이다.  
올해 4월 왼쪽 아킬레스건을 다쳤던 최지만은 7월 8일에 빅리그로 복귀했다. 올 시즌 성적은 타율 0.205, 6홈런, 11타점으로 저조하지만, 최근 선발 출전한 8경기에서 홈런 4개를 치는 등 장타력을 회복하고 있다.



최지만 김하성  
스타 플레이어가 준비한 샌디에이고는 올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 와일드카드 7위에 머물러 있다. 포스트시즌행 마차를 탈 수 있는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위와의 격차는 5게임이다.  
부진에 빠진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팬들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선수가 김하성이었다. 김하성은 빅리그 최정상급 수비력을 뽐내며, 타석에서도 1일까지 타율 0.279, 14홈런, 3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22로 활약했다.  
샌디에이고는 새롭게 결성한 '샌디에이고 코리안 듀오' 김하성, 최지만이 포스트시즌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길 기대한다. /연합뉴스